

## 개혁신앙 부록 목록

- 3호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비교표 / 박영선 3면
- 4호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 김명도 20면
- 5호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이해 / 손봉호 16면
- 6호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이해 / 신복윤 10면
- 7호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 / 김명도 24면
- 8호 복음주의, 근본주의, 개혁주의 어떻게 다른가? / 신복윤 24면
- 9호 우리는 왜 WCC를 반대하는가? / 문병호 36면
- 10호 Oswald Chambers의 신학 / 김명도 20면
- 11호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 김명도 20면
- 12호 칼빈의 예정의 논리 / 고광필 28면
- 13호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 박 신 16면
- 14호 평신도 필독 성경과 신앙서적 / 김명도 26면
- 15호 뉴 에이지 운동은 무엇인가? / 김명도 26면
- 16호 개혁파 교회론 / 서철원 26면
- 17호 죽음, 부활, 심판 / 김명도 외 36면
- 18호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 / 이승구 외 28면
- 19호 칼 바르트의 신학과 비평 / 한종희 44면
- 20호 단일론이란 무엇인가? / 김명도 36면
- 21호 칼빈의 5대 교리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 / 홍석승 48면
- 22호 레노바레 / 조진모 40면
- 23호 종교다원주의 발생 배경과 개혁주의의 대응 / 이은선 24면
- 24호 칼빈주의 vs 알미니안주의 / 정은표(편집) 44면
- 25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 김효성 외 36면
- 26호 이단사이비이 교회사적 고찰 / 박용규 24면
- 27호 칼빈의 제네바교회 교리문답(상) / 정은표(편집) 48면
- 28호 칼빈의 제네바교회 교리문답(하) / 정은표(편집) 56면

\* 주문 : 부록 1권 당 \$2씩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The Truth Lighthouse

1816 Crested Bird  
Irvine, CA 92620

(208)921-5336

<http://thetruthlighthous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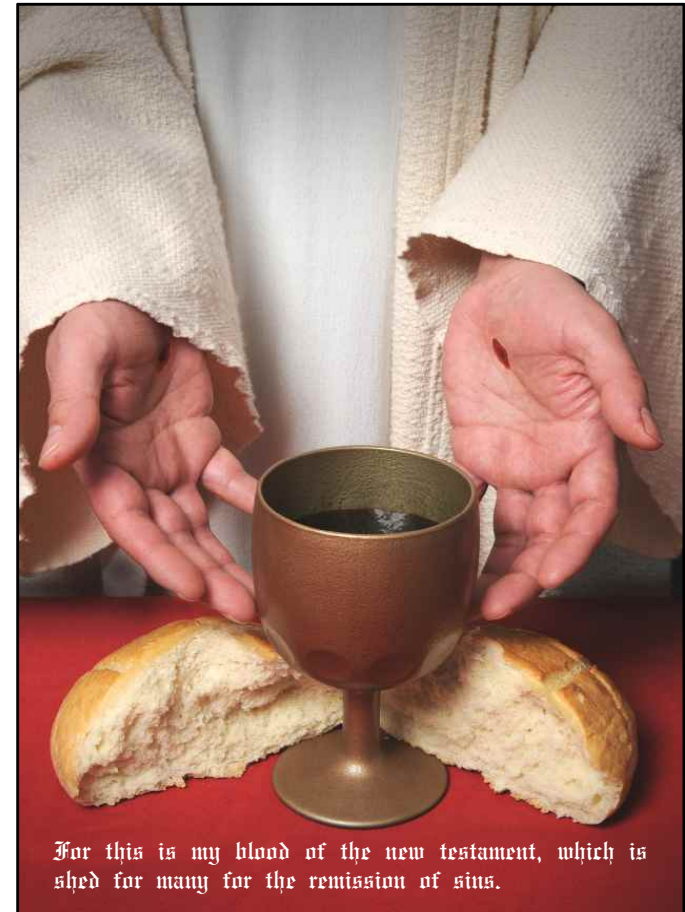


## 개혁신앙 28호 부록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 JOHN CALVIN

# 1542 제네바 교리문답(하)

존 칼빈



<http://thetruthlighthouse.org>



개혁신앙 <28호> 발행인 정은표 발행일 2015년 3월 1일  
발행처 월간 진리의 등대 [idaho\\_jesus@hotmail.com](mailto:idaho_jesus@hotmail.com)  
1816 Crested Bird Irvine, CA 92620 (208)921-5336

## 2. 율 법

131문 :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삶의 규정을 주셨습니까?

대답 :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132문 : 율법의 어떻게 구성되어있습니까?

대답 : 율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네 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여섯 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은 모두 열 가지입니다.

133문 : 이 구분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대답 :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두 돌 판에 써 모세에게 주시고, 이는 열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저편에 글자가 있으니”(출 32:15)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신 4:13)

### (1) 십계명

134문 : 첫째 돌 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답 : 하나님께 올바르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135문 : 둘째 돌 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답 :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 1) 제 1 계명

136문 : 제 1 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대답 :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출 20:2,3)



**Genevan Catechism** / John Calvin produced a catechism while at Geneva (1541), which underwent two major revisions (1545 and 1560). Calvin's aim in writing the catechism of 1545 was to set a basic pattern of doctrine, meant to be imitated by other catechists, which would not affirm local distinctions or dwell on controversial issues, but would serve as a pattern for what was expected to be taught by Christian fathers and other teachers of children in the church. The catechism is organized on the topics of faith, law, prayer and sacraments.

## 1542, 칼빈의 제네바교회 교리문답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 JOHN CALVIN

### 시작하는 말

본 교리문답서는 1542년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제네바 교회에서 자녀들과 새신자의 성경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던 교리문답서를 번역한 것으로 또한 참고로 장로교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던 신앙고백서들과 교리문답서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추가로 편집한 것이다.

137문 : 그 뜻을 말해 보십시오.

대답 : 하나님은 이 처음 부분을 율법 전체의 서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영원하신 분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심으로 세상 만물에 명령권이 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계명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138문 : 그러나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민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대답 : 단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인 영적인 본질로 볼 때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라는 영적 종살이로부터 그리고 악마의 억압에서 우리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39문 : 하나님은 왜 율법의 첫 시작에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대답 :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며, 또한 우리가 그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 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140문 : 제 1 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 :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것입니다.

141문 :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대답 :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만 간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에 돌려 드려야 할 모든 것들입니다.

142문 : 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답 :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인간들이 지

니고 있는 은밀한 생각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겉으로의 신앙고백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진실성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 어다."(잠 23:26)

2) 제 2 계명

143문 : 제 2 계명을 말해보십시오.

대답 :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그것들에게 나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지 말라.)"(출20:4,5)

144문 :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도(image) 만들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금하신 것입니까?

대답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형상화(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할 목적으로 혹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입니다.

145문 :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합니까?

대답 : 영이시며 영원하신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생명 없이 썩어질 눈에 보이는 물체 사이에는 그 어떤 일치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sup>41)</sup>

146문 :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존귀)를 더럽힌다는 말입니까?

대답 : 분명히 그렇습니다.

147문 : 여기서는 어떤 예배형식이 정죄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 :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나 하는 것처럼 그 형상 앞에 나아와 기도를 드린다는지 그 형상 앞에 무

를 꿰는 다든지 그밖에 다른 어떤 존경의 표시를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148문 :** 그러므로 이 계명에서는 모든 조각이나 그림, 즉 예술품들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단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형상들, 외형적인 형상들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종교적인 형태들이든지 이 형상들로 우상숭배로 오용하는 것이 정죄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149문 :** 제 1 계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 : 제 1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다른 헛된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심을 선언하신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를 모든 미신들과 육신적인 예배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 무엇이 옳바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50문 :** 그 다음을 말해 보십시오.

대답 : 하나님은 이 계명에 한 가지 위협의 말씀을 첨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51문 :**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대답 :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152문 :**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란 무엇을 말합니까?

대답 :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과 동등시 하는 그 어떤 신도 참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영혼의 정조(순결, 정절)는 영혼을 오직 그분에게만 드리는 것이며, 반

면에 우리가 하나님 외의 어떤 다른 미신에 빠지는 것은 우리 영혼의 음행(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153문 :**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별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대답 :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다 큰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만을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들 이후에 오는 아들의 자손도 저주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4문 :**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처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대답 : 만일 우리가 인류의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본성적으로 저주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 대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인의 자녀들을 저주 가운데 버려두실 때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155문 :**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대답 :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당신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6문 :** 이 말은 어느 한 성도의 복종이 비록 그의 자손이 악한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까?

대답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인자하심을 확대시켜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당신의 은혜로우신 분으로 깨닫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들의 자손들을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만 변역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57문 : 그렇다면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자녀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자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거나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롭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이 결코 공허하거나 무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정도 내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 9:15)

158문 : 왜 하나님은 여기서 축복하실 때는 천대라고 말씀하시고 위협하실 때는 단지 삼, 사대라고만 말씀하십니까?

대답 : 이는 하나님의 본성이 엄격하거나 가혹하심을 행하시는 것 보다는 인자와 친절을 베푸시는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는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시 103:8)

3) 제 3 계명

159문 : 제 3 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대답 :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출 20:7)

160문 :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답 :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거짓된 맹세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서약이나 무의미한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남용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161문 : 그러면 우리는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말씀)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는 성도 가운데서 사랑과 일치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162문 :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맹세를 징계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대답 : 그것은 하나의 실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것을 찬송하기 위하여 두려움과 겸손으로써만 부르는 것이지, 그 밖의 방법으로서는 결단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또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혹은 모욕의 원인을 만들어 주는 듯한 것들도 (마음 중심으로부터)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163문 : 어떻게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대답 :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할 목적 이외로는 하나님과 그의 사역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164문 : 제 3 계명에 첨가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대답 :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65문 : 하나님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모든 범죄자들을 벌하시리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 계명에서 심판이 가지는 특별한 뜻과 의미가 있습니까?

대답 :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이름의 영광을 특별한 계명으로써 보존하시는지를 선언하고자 원하시는 것이므로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층 더 신중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 4) 제 4 계명

**166문** : 제 4 계명을 말씀해 보십시오.

대답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11)

**167문** : 하나님이 제 칠일에 우리로 쉬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 중 엿새 동안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대답 :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도록 하실 때 일곱째 날은 일해서는 안 되는 날로 보류해 놓으신 것입니다.

**168문** :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어떤 일을 못하게 금하신 것입니까?

대답 : 이 계명은 몇몇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안식일의 준수는 옛 이스라엘의 율법 의식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적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습니다.<sup>42)</sup>(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169문** : 그러면 이 계명이 본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구약시대에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대답 : 그것이 율법의 의식 중 하나인 한 그렇습니다.<sup>43)</sup>

**170문** : 그러면 이 계명에는 의식적 형태 외에 또 다른 요소가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대답 : 이 계명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71문** : 그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대답 : 첫째는 성도의 영적안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질서(규율)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는 종들(아래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172문** : 영적안식이란 무엇입니까?

대답 :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일들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173문** : 이 영적안식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 : 하나님이 그의 영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육체를 억제하고 우리의 본성적 욕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174문** : 이 일은 일주일간에 한 번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대답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생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 일을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75문** : 그러면 왜 그 일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 어떤 일정한 날을 정한 것입니까?

대답 : 상징은 사실과 전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자 사이에는 어떤 유사한 점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76문** : 왜 칠일 중 다른 날이 아니고 제 칠일을 이런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했습니까?

대답 : 7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완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영원성’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영적 안식이 현재 생활에서는 다만 시작한데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결코 완전하게는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177문** : 여기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쉬신 것처럼 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 : 하나님은 옛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칠일은 이 창조물들을 복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는 일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178문 :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묵상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곱째 날 하루로 충분합니까?

대답 : 이것은 매일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위한 특정한 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내용 중 ‘교회의 질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179문 : 이 날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대답 :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교육 받고, 공동으로 함께 기도 드리며, 믿음과 경건의 증거를 나타내도록 함께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180문 : 이 계명이 종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위로 해 주기 위해서도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답 :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지배 밑에 있는 종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공질서에도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쉬는 날이 하루 있을 때 사람들은 나머지 날 동안에는 일하는 습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181문 : 이제 제 4 계명의 내용을 요약해 보십시오.

대답 : 제 4 계명이 율법의 의식으로서의 폐기(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참된 의미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82문 :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대답 :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183문 : 이 계명의 내용 중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 :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공중기도를 드리는 일과 또 성례전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의 제정된 규칙을 준수하고 성도들 사이에 세워진 영적규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184문 : 그러면 이런 형식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대답 : 유익이 대단히 큼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진리의 본질에까지 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이 된 이상 우리는 우리를 그분의 선하신 모든 통치에 내어 맡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 5) 제 5 계명

185문 : 십계명의 둘째 판으로 넘어가 제 5 계명이 무엇입니까?

대답 :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186문 :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답 : 자녀들이 부모에게 겸손하고, 순종하며,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부모를 도우며 부모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187문 : 제 5 계명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대답 : 하나님이 이 계명에 한 가지 약속을 첨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188문 : 하나님의 이 약속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답 : 하나님이 부모에게 마땅한 공경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89문 : 이 세상의 삶은 비참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오래 살게 해 주시는 것을 은혜로 간주하며 이를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대답 : 이 세상의 삶이 비록 비참한 것이라고는 하나 장수(長壽)는 믿는 자에게만 허락 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평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데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90문 : 그러면 일찍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대답 :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가 매우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빨리 데려가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sup>44)</sup>

191문 : 이렇게 이중적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대답 :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 행복들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그것들은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해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사실이 항상 앞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 생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92문 :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 : 하나님이 최후 심판 날에만 이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도 그들의 욕신에 대해 벌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을 일찍 죽게 하신 다든지, 수치스럽게 죽게 하신 다든지 또는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하신 다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193문 :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특히 가나안 땅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대답 : 네, 이 계명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보다 더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든 그 땅 역시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시 24:1)

194문 : 위의 내용이 이 계명의 전부입니까?

대답 : 이 계명이 부모만 말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모든 연장자들(상전, 윗분들, 지도자)이 포함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부모에게 대한 꼭 같은 원리가 이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95문 : 연장자에 대한 어떤 원리입니까?

대답 :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면 아버지나 왕이나 그 어떤 연장자에게도 권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 13:1)

## 6) 제 6 계명

196문 : 제 6 계명을 말해보십시오.

대답 : “살인하지 말지니라.”(출 20:13)

197문 : 이 계명은 단지 외적 살인 행위만을 금지하신 것입니까?

대답 :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 행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모든 악한 충동을 금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명하셨습니다.

198문 : 그러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어떤 ‘내면적 살인’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미움, 원망과 이웃에게 악을 행하려는 모든 욕망입니다.<sup>45)</sup>

199문 : 그러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 단지 미워하지 않는다고, 아니면 악한 마음을 품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대답 :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움을 정죄하실 때 그 분은 우리가 이 죄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거짓 없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의 안전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7) 제 7 계명

200문 : 제 7 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대답 : “간음하지 말지니라.”(출 20:14)

201문 :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답 : 모든 간음은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간음의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202문 : 이것은 외적 간음만을 금지하는 것입니까?

대답 :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7계명을 정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외적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마음의 성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지어다.”(잠 23:26)

203문 : 그러면 이 계명이 어떤 의미들을 더 포함하고 있습니까?

대답 :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님의 전(殿)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거룩하고 단정하게 보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간음에 대한 욕망, 말, 몸짓에 대해서까지도 거룩하고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부분도 더러움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7)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

## 8) 제 8 계명

204문 : 제 8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대답 :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출 20:15)

205문 : 이 계명은 일반 재판에서 징벌을 받는 그러한 도적질만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대답 : 여기서 말하는 도적질이란 그것이 폭력을 통해서나, 교활함을 통해서나 또는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즉 모든 부당한 상거래 및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모든 부정직한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6문 : 그러면 이런 외적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내적인 마음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대답 : 우리는 언제나 계명을 정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적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서 단순히 외적 절도행위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웃을 희생시켜 자기가 부유해 지려는 계획, 의도, 생각 등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7문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 : 우리는 시민 각자가 자기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sup>46)</sup>

## 9) 제 9 계명

208문 : 제 9 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대답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출 20:16)

209문 : 이 계명은 재판 때 위증만을 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에 대한 모든 거짓말을 전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 : 모든 형태의 거짓말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이웃에 대해 더러운 욕을 해서는 안 되며, 또 거짓말을 하거나 이웃 사람의 재산과 명예를 절대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것 등의 일반적인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10문 : 왜 이 계명은 공적 위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대답 :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 대한 험담과 중상모략의 악(惡)을

혐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거짓되게 이웃을 중상하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후에 법정에서도 쉽게 위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11문 :** 이 계명은 외적으로 행하는 것만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 : 아닙니다. 앞의 계명들처럼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외적으로 부당하게 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악한 생각과 마음이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212문 :** 그러면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을 요약해 보십시오.

대답 : 이 계명은 이웃을 악평하거나 중상하려는 생각을 절대 갖지 말고, 항상 사실과 일치하도록 이웃을 평가하고, 이웃의 명예를 보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 10) 제 10 계명

**213문 :**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대답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출 20:17)

**214문 :** 만일 모든 계명이 영적인 것이라면 즉 다른 모든 계명들이 외적 행위들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향까지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이 계명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 : 주님은 계명들을 통해 우리의 외적 행동과 충동은 물론 우리의 의지까지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욕망이나 탐욕들을 품고 있기는 하나 아직 의도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는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215문 :** 당신은 성도의 아주 작은 욕망까지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그가 이것에 대해 저항하고 결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대답 : 비록 그런 유혹에 동의하지 않아도 모든 악한 생각은 우리의 육의 연합함에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계명이 아직 확정된 의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임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며 괴롭히는 탐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6문 :** 확고한 의지적 결단의 은밀한 나쁜 충동들이 정죄되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완전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하여 그 어떤 악한 욕망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움직여 악에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 (2) 율법의 요약

**217문 :** 이제 율법(십계명) 전체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까?

대답 : 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sup>47)</sup>

**218문 :**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답 :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한다면 이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요, 구주요,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 신뢰 그리고 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9문 :**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힘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답 :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너무 커서 이 사랑에 배치되는 그 어떠한 욕망, 뜻, 계획 그리고 생각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시 73:25)

**220문 :** 둘째 조항은 무슨 뜻입니까?

대답 :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성향이 강하여 이

감정이 다른 모든 성향들을 제압 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1문 :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대답 : 단순히 부모, 친척, 친구 등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 또한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222문 : 그렇다면 이들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대답 : 이런 이웃관계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워주신 질서로서 신성불가침한 것이며, 우리의 죄악으로도 폐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223문 : 그러면 누군가 우리를 증오한다면 그것은 (우리과 무관한) 그 사람 자신의 감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하면 그는 우리의 이웃됨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를 계속 이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 (3) 율법의 이행

224문 : 율법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율법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다는 것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225문 :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지나치는 그러한 완전한 기준을 요구하십니까?

대답 :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완전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할 지라도, 그 부

족을 우리 탓으로 돌리시지 않습니다.

226문 : 당신은 지금 모든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믿는 자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 : 성도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의 가장 작은 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히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신 27:26)

### (4) 율법의 용법(율법의 제 3 용법)

227문 :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율법도 이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해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율법은 죽음과 정죄를 (선언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 대해서는 율법은 아주 다른 용도의 직무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롬 3:3)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군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고후 3:6)

228문 : 성도들에 대한 율법의 직무는 어떤 것입니까?

대답 : 첫째, 행위로는 의롭게 누구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둘째, 율법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간구하도록 해 줍니다. 동시에 율법은 성도들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들이 불의한 존재임을

항상 자인하게끔 훈계해 줍니다. 셋째, 율법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두려움에 붙들어 두기 위한 율타리वाद 같습니다. 즉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229문** : 그러면 이 말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율법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즉 이 율법은 성도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따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게 해 주며 또 영적으로 매일 성장해 가도록 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대답 : 예, 그렇습니다.

**230문** : 우리는 율법 안에서 모든 선(善)에 대한 완전한 규범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준수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 이외의 인간이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것도 인정치 않으시고 거부하십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외의 다른 그 어떤 제물도 흠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sup>48)</sup>

**231문** : 그렇다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행한 훈계, 충고, 명령, 권면 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답 : 그것들은 우리를 율법의 순종으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설한 것이며 율법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232문** : 그러나 율법은 각 개인의 순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 : 예, 그렇습니다. 율법이 각 개인에게 속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에 각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명을 성경 전체에서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은 율법에서 요약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 도처에서 이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3. 기 도

#### (1) 기도의 의미

**233문** :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부분인 봉사와 순종의 삶에 대해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답 : 모든 곤경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234문** :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분에게만 기도드려야 합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되심에 적합한 영예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235문** :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답 :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는 어떤 좋은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보호가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울 능력과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실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236문** :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즉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그들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요 분배자로 삼으셨다는 전제 하에 서만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좋은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37문** :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좋은 선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대답 :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단순히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명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238문 : 우리가 천사나 이미 세상을 떠난 성자(聖者)에게 기도하는 것은 왜 옳지 않습니까?

대답 : 하나님은 죽은 성자들에게 우리를 도우며 보호해야 할 직무를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또 죽은 자는 산 자를 도울 수 없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천사들을 사용하신다 해도 (그들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239문 : 그러면 죽은 성자들이나 천사들에 대해 하나님의 명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한 불신앙의 표시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죽은 성자나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기도)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신뢰의 일부를 그들에게 돌리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240문 :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생각과 마음이 함께 요구됩니까?

대답 : 기도예 말이 어느 때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과 마음은 기도예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41문 :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대답 :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자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되는 기도예 있어서는 특히 더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시 145:18)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 29:13)

242문 : 그러면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는 다 무익하다는 말입니까?

대답 :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243문 :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대답 : 먼저 자신의 비참과 궁핍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감정은 우리 안에 슬픔과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으려는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며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을 일으켜 줍니다.

244문 :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까?

대답 :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즉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열정의 기도를 통해 우리기도예 응답 해 주십니다.<sup>49)</sup>

245문 : 그러면 이 같은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은 기도하기를 힘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대답 :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갈증을 느끼지 못할 때나 기도예 게을러질 때 간절히 기도할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더욱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6문** : 그러면 간절히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되고 우리의 혀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대답 :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의 혀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혀는 다른 지체들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이 목적을 위해서만 혀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가 때로는 격렬함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 무익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247문** : 그렇다면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언어(통역이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답 :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일종의 사악한 위선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고전 14:6)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고전 14:11)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전 14:19)

## (2) 기도 응답의 확신

**248문** :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행운을 기대하듯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해도 응답 해 주시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합니까?

대답 :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249문** :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 :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익한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만이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 21:22)

**250문** : 다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어떻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답 : 첫째,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경우라든가 굳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도록 인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별레같은 비참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합니다.<sup>50)</sup>

**251문** :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까?

대답 :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 될 것을 약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sup>51)</sup>

**252문** :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로 모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무모함이나 어리석은 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은 물론,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3) 기도의 모범 - 주기도

253문 :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니까, 아니면 기도에는 어떤 특정한 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답 : 만일 인간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매우 무질서하고 왜곡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정확히 판단할 능력이 없고, 또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압박하는 무절제한 인간적인 욕망들을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254문 :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대답 :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올바른 길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255문 : 그러면 그 기도의 규범은 어떤 것입니까?

대답 :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기도에는 매우 풍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한 기도의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기도의 모범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모범은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요점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56문 : 그 기도의 모범을 말해 보십시오.

대답 :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신 후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 6:9-13 눅 11:1-4)

257문 :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대답 :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이들 중 처음 세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의 영육의 행복과 유익에 관련됩니다.

258문 : 처음 세 가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대답 : 하나님은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을 따라 그의 영광과 우리 구원의 유익을 위해 섭리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 나라는 바로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과 무관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259문 : 나중 세 가지 간구들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만 이 기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나중 세 가지 간구들이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이 또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시 115:1)

### (4)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260문 : 이제 주기도의 해석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십니까?

대답 :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5)

261문 :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나아가듯 우리가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듯 기도 응답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우리도 자녀들이 빵과 고기를 구할 때 이를 거절할 수 없다면, 무한히 선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간구를 더 더욱 거절하시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sup>52)</sup>

262문 :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명칭에서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습니까?

대답 : 그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된 지체이어야만 그의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263문 :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대답 :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 이웃 사랑과 또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아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64문 :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답 : 그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권능이 있으시며, 인간의 이성으로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sup>53)</sup>

265문 :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 :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육적이거나 세속적인 욕망에 따르지 않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있는 우리의 뜻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경외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늘의 통치자로 선포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욱 고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신 4:15)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시 115:3)

#### (5)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266문 : 이제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대답 : ‘하나님의 이름’이란 우리 인간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높이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경배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267문 :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까?

대답 :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는 영원불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모든 사역에서 본래의 모습 그대로 온 세상에 나타나 보여 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268문 : 두 번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대답 :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의 영을 통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의 통치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버림받은(유기) 자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269문 : 그러면 ‘나라이(가) 임하옵시며’는 무슨 뜻입니까?

대답 :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성도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는 것과 이들에게 충만하기까지 주의 은혜를 채워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진리(말씀)를 점점 더 밝게 해 주시어 사탄의 어둠을 몰아내며, 주의 의(義)의 능력이 발휘되어 모든 불의가 파멸되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270문 :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 :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온 세상이 완전히 정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 날에 이루어질 것이며, 이 날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모든 피조물의 질서가 본래대로 회복 되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것입니다.<sup>54)</sup>

## (6) 하나님의 뜻의 실현

271문 : 셋째 간구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무슨 뜻입니까?

대답 :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며, 또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굴복하여 그분에게 복종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엡 1:11)

272문 :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사건)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답 : 모든 일이 종말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반역을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사 14:24)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사 14:27)

273문 : 위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그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는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하나님이 꺾어 주셔서 무력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의 영이 우리의 욕적 욕망을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롬 8:27)

274문 :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을 첨가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답 : 하늘에 있는 피조물인 천사들은 어떤 반항도 없이 그저 묵묵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 (7) 일용할 양식

275문 : 둘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간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답 :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현존하는 우리의 생명 보존을 위한 일체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음식이나 의류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인정 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채워주시며,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먹고 마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276문 : 하나님은 우리 손의 수고를 통해 양식을 얻으라고 명하셨는데 왜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대답 :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 양식을 얻게 하

셨을 지라도 우리의 노동의 수고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노동의 열매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아무런 수확이 없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음식물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sup>55)</sup>

**277문 :**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왜 ‘우리(에게) 양식’이라고 합니까?

대답 :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본래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식’이라는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식을 탐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 얻은 양식에 만족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기 때문입니다.

**278문 :** 왜 ‘오늘날’(today) ‘일용할’(daily) 양식이라고 말했습니까?

대답 :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대로 필요 이상을 탐하지 않고 우리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절제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279문 :** 위의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돈 많은 부자는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까?

대답 :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그 소유가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소유재산으로 인한 유익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자도 날마다 주어진 소유로 유익을 얻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 (8)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280문 :**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대답 :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281문 :** 죄 용서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 :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이 기도 모범을 교회에 주실 때 이런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교회라는 신앙공동체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사람은 다음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욥 9:3)<sup>56)</sup>

**282문 :**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됩니까?

대답 : 주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인해 죄인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283문 :**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 된다는 말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은혜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주 작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84문 :**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때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대답 :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285문 :**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은 우리가 남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죄 용서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대답 :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니라면 이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을 본 받는 자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줄 모른다면 우리의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86문 :**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죄도 용서함 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마 6:15)

**대답 :**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 이웃에게 행한 것처럼 자신들도 보응 받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287문 :** 주기도의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대답 :**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288문 :**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는 간구와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간구는 서로 연관 된 것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앞에 것의 해석입니다.

**289문 :** 그러면 이 여섯 번째 간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답 :**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과 범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우리 육신의 욕망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주의 손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290문 :**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답 :**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대한 사랑과 주님의 의를 갈망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육신의 정욕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증오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291문 :** 모든 사람이 이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항상 우리를 삼킬 기회만 노리고 있으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 해 주

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락하여 부패하고 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sup>57)</sup>

**292문 :** ‘시험(유혹)’이 무엇입니까?

**대답 :**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기 위한 지속적인 모든 간계와 기만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교만에 빠지게 되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에 대항하지 않고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흐려지면 우리는 쉽게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게 됩니다.

**293문 :** 사탄의 유혹과의 싸움은 당신 일인데 왜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까?

**대답 :** 하나님이 성도들이 이길 수 없는 사탄의 간계와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벌하시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실 뿐 아니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버려두시면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294문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의 이 마지막은 무슨 뜻입니까?

**대답 :** 이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며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영원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마쳐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295문 :** 우리가 주기도의 내용 이외의 다른 것을 간구하면 안 됩니까?

**대답 :** 우리는 다른 말과 다른 형식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4. 성 경

## (1)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냄

296문 :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외의 네 번째 부분을 말해 봅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답 : 그것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sup>58)</sup>

297문 :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고백 외에 또 없습니까?

대답 :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경의 모든 찬양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입니다.

298문 : 이것은 주기도에 이미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때는 자비로우신 분으로, 죄인을 벌하실 때 의로우신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 될 때는 신실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일깨우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99문 : 이제까지의 모든 진술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대답 : 앞서의 언급처럼 그것은 진리의 말씀(성경)이 증거 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에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아버지이시며, 구원자시라는 것과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을 얻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갈 2:20)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 (2) 은혜의 방편(方便)인 하나님 말씀(성경)

300문 :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영적 은혜와 복의 소유자가 됩니까?

대답 :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말씀(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성경)은 영적인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과 천국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301문 : 어디서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까?

대답 :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302문 :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이 같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 :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늘에서 온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며 성경을 잘 배워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와 이성(理性)으로 힘써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303문 : 이러한 삶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대답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304문 : 그렇지만 우리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일상적으로 성경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구원의 교리를 공부하는 성도들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왜냐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305문 : 공적으로 함께 모여 구원의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공부하면 안 됩니까?

대답 : 혼자 말씀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공적으로 함께 모여 하도록 해야 합니다.

306문 :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 :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서를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은 성도 한 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된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성경공부도 예외 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보다 현명한 자는 없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주님이 세우신 이 양육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sup>59)</sup>

307문 : 꼭 목사가 교회를 이끌고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경외하듯 귀담아 잘 듣고 겸손히 마음에 받아드려야 합니다.(선포자는 사람이거나, 목사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선포 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에 의해 참 되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 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경멸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주님의 몸 된 신앙공동체(교회)에서 배제 되어야 합니다. (또 목사는 성령 안에서 경외와 두려움으로 주님의 말씀만 참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 2:13)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눅 10:16)

308문 : 성도는 목사의 가르침을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평생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대답 :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일평생 주님의 제자로 성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목사들에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위로

주님의 양 무리들을 먹이고 다스리도록 이를 위임하셨습니다.

## 5. 성례

### (1) 은혜의 방편(方便)인 성례(세례와 성찬)

309문 : 하나님의 말씀 선포(설교) 외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대답 :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 선포(설교)와 함께 또한 성례를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310문 : 그러면 성례란 무엇입니까?

대답 : 성례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이고 외적인 방법으로 증거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311문 : 가시적이고 외적인 성례를 통해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더 견고해 진다는 말입니까?

대답 : 가시적이고 외적인 성례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312문 :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례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까?

대답 : 성령의 사역과 성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별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조명하시고 또 우리 신앙 양심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뿐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이 같은 성령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반면에 성례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기는 하지만 이 성례 또한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함께하시고 역사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례를 이유로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배제 되거나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313문 :** 그러면 성례의 효력이 성례 시행 방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례의 효력도 전적으로 성령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어떠한 손상도 없이 주님이 제정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14문 :**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 : 하나님이 우리의 연합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도 천사들처럼 영적 본성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영적 은혜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고 완전하지 못한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영적 은혜들을 우리의 처지에 맞도록 외적인 표시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기능과 함께 육적감각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더욱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이 명하신 가시적 성례는 우리에게 매우 효과적이고 적합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315문 :** 하나님이 우리의 연합함과 필요 때문에 제정하신 성례를 불필요하다고 거부하는 것은 정죄되어야 합니까?

대답 : 분명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례를 필요 없다고 금하면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며,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려는 사람입니다.

**316문 :** 어떤 이유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성례에 참여하였다고 할 때도 그 성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대답 : 불신자들이 믿음 없이 성례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성례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이로 인하여 성례의 능력과 본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317문 :**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성례를 통한 은총이 발휘(發揮) 됩니까?

대답 : 믿음으로 성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318문 :** 왜 우리가 성례 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대답 : 그 이유는 성례의 가시적 방법이나 매개물이나 또는 성례 집행자로부터 성례의 은혜가 발산(發散) 되는 것이 아니며, 성례의 가시적 방법이나 매개물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319문 :** 성례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 :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구원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가시적 말씀인 성례를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명하셨는데,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증진 되어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성례의 목적인 것입니다.<sup>60)</sup>

**320문 :** 만일 누군가 이렇게 가시적인 은혜의 방편인 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강화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아닙니까?

대답 :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믿음이 연합하다는 표시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연합함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합한 믿음이라고 구원 받은 성도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항상 힘써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321문 :** 주님이 교회에 명하신 성례는 몇입니까?

대답 :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하신 성례는 둘 뿐입니다.

322문 :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답 : 세례와 성찬입니다.

323문 : 이 두 가지 성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답 : 세례는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문과 같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이방인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이 확증됩니다. 성찬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 (2) 성인 세례

324문 : 두 성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해 봅시다. 먼저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답 :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와 영적 거듭남을 표현(表現)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엡 5:26)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4)

325문 : 가시적인 세례의 물이 어떤 의미로 죄 씻음과 영적 거듭남의 표현(表現)입니까?

대답 : 물로 우리의 더러운 몸을 깨끗이 씻음과 같이, 이 같은 죄의 용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326문 : 세례의 또 다른 의미인 거듭남(重生)은 무엇입니까?

대답 : 거듭남(중생)은 우리 육체의 욕망(慾望)이 죽는 것인데, 세례 받을 때 물과의 접촉은 이 같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옛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거듭남, 중생, 새로운 피조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부활도 있게 된 것처럼, 세례는 옛 사람이 죽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327문 : 당신은 물이 정말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는다고 믿습니까?

대답 :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가시적 세상 물질인 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정결한 자로 설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의 물이나 세례 의식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욕되게 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328문 : 그러면 물세례는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까?

대답 : 물세례가 하나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상징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물세례의 의식을 방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할 때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329문 :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합니까?

대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물세례는 받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때 세례의 본질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통한 주님의 은혜와 약속의 성취는 오직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330문 : 어디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옵니까?

대답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될 때 우리 옛 사람의 사악함이 또한 죽어 우리를 다시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덤에 장사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31문** : 어떻게 세례를 통해 이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대답 :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즉 세례를 통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성령님은 그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332문** : 세례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 : 회개와 믿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슬퍼하며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믿어야 합니다. 아울러 성령의 내주하심을 감지하며, 절제와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 (3) 유아 세례

**333문** : 세례 받는 자에게 회개와 믿음이 요구 된다면, 어떻게 유아 세례가 가능합니까?

대답 : 세례의 회개와 믿음은 이를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유아에게는 택함 받은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세례를 베풁니다. 그리고 성장 후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334문** : 유아를 세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입니까?

대답 : 타당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할례가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백성(난지 8일 된 어린 아기도 포함)의 언약의 표로 말했고, 신약의 바울도 이것을 단지 성도의 믿음의 성례라고 말했습니다.(아기 예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에 있어 주님이 어린이 아이를 제외시키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sup>61)</sup>

**335문** : 구약의 할례가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또한 오늘 날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기 때문입니다.<sup>62)</sup>

**336문** : 그러면 구약의 언약의 표지를 오늘 날도 교회가 사용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와의 관계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가 의미하는 이스라엘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거나 변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례를 통해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세우신 세례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확대하셨습니다.

**337문** : 그렇다면 유아 세례를 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를 금할 경우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할례를 통해 어린 아이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증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338문** :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통해 더욱 확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로 몸에 각인하게 하신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미의 신약의 유아 세례를 금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때 세례의 본질과 능력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 한 것이 분명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가 당장은 성인들처럼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언약의 백성인 믿는 자들의 유아들에게서 언약의 외적 표지를 금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막 10:16)

**339문** : 그러나 세례를 명하신 주님의 뜻이 충족되기 위한 유아 세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답 : 그것은 세례 받은 어린아이들이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인이 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상속자라는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 (4) 성찬(주의 만찬)

340문 : 이제 성찬에 관해서 말해봅시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대답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것인데,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나타내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와 의 사귀를 갖는 것이며 또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341문 : 왜 빵은 주님의 몸으로,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나타냅니까?

대답 : 빵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주님의 몸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됨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원기를 돋우며 강하게 해 주는 것처럼 주님의 피가 우리 영혼에 은혜와 유익 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342문 : 반드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합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 할 때에 주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돌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나타내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는 길을 하나님은 이것 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없습니다.

343문 :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제적 효력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344문 : 그렇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성경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며, 그와 한 몸이 된 것을 통하여 그의 모든 은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효력입니다.

345문 : 그러면 오로지 성찬을 통해서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합니까?

대답 :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말씀)을 통한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자들인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시며,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심 같이 성경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성도의 교제)을 그는 말했습니다.<sup>63)</sup>

346문 : 우리가 성찬에서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대답 :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성찬을 통해 점점 더 강화되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한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하나 됨이 아직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재림 때 완전 성취됨)

347문 : 성찬의 떡의 상징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 :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을 받아먹을 때,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 시키시려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성경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마음에 믿음으로 행하도록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48문 : 성찬의 잔의 상징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 :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잔)를 받아 마실 때,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349문 : 우리는 단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뿐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유일하고 영원한 효력을 지닌 희생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이미 하나님께 바쳐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우리가 이를 기뻐하고 즐기는 것뿐입니다.

350문 : 성찬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봉헌하기 위해 성찬이 제정 된 것 아닙니까?

대답 :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자신만이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단지 “나의 살과 피를 받아먹어라! 마시라!”고만 하셨습니다. 즉 성찬은 우리가 그의 몸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으라고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의 몸을 봉헌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이를 받기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마 26:26,27)

351문 : 왜 성찬에 떡과 잔 두 가지가 사용 됩니까?

대답 : 주님은 성찬의 두 가지 표지(signs)를 통해 우리로 성찬의 은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 생명 유지와 성장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완전하고 영원한 영적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352문 : 성도는 누구나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해야 합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를 폐기하려 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353문 : 성찬의 떡과 잔은 단지 상징적인 은혜의 표지일 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까?

대답 :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제정하시고

명하신 성찬의 표지를 수단으로 약속하신 은혜가 실제로 임하신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참여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354문 :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답 : 하나님은 영이시며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355문 : 실제로 떡에는 주님의 몸이, 잔에는 주님의 피가 있는 것입니까?

대답 : 아니 정반대 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집례자가 손에 들고 주님의 몸과 피라고 말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하늘에 계신 구원의 주님을 이 땅의 물질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입니다.

356문 :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성찬의 떡과 잔이 있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그것들을 방편으로 하는 우리 영혼을 위해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처럼,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 (5) 성찬과 참여자의 준비

357문 : 성찬의 참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대답 : 모든 성도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고전 11:28)

358문 : 무엇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대답 : 자신에게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가?”라고 질문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9문 :** 주님의 지체 된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대답 : 참된 회개와 믿음, 거짓 없는 진실한 이웃사랑, 미움이나 증오가 없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세상과 구별 된 경건생활 등입니다.

**360문 :** 믿음과 사랑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대답 : 믿음과 사랑이 두 가지는 순수하며 진실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완전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다 성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완전무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361문 :**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허물이 없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성찬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 된 것입니다.

**362문 :** 세례와 성찬은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대답 : 예,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고백의 대표적인 외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회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63문 :** 세례나 성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대답 :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否認)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나 성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신앙고백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64문 :** 세례와 성찬은 한 번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대답 : 세례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하며 반복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매번 참여해야 옳습니다.

**365문 :**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 : 하나님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증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계속 먹이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하며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366문 :** 누구든지 세례와 성찬을 집례(執禮) 할 수 있습니까?

대답 :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주님이 안수(按手)하여 세우신 자(牧師)에게만 허락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일과 성찬을 통하여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367문 :** 이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까?

대답 : 주님은 특별히 사도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성찬 또한 예수님 자신의 모범을 따라 이를 행하도록 사도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눅 22:19)

**368문 :** 누구든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도록 허락해야합니까?

대답 : 성인 세례는 올바른 신앙고백 자에게 주고, 유아 세례는 성도의 자녀들에게 차별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떡과 잔은 거듭나(重生)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성찬의 떡과 잔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369문 : 왜 그렇습니까?

대답 :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것이며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70문 : 그러나 주님은 가롯 유다도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대답 :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의 악함이 아직 들어나지 않았었고, 그래서 주님은 그가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371문 : 그러면 자기의 악함을 숨기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 : 목사라 할지라도 이런 자들의 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나기까지 주의 성찬의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런 자들의 악함을 들어내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72문 :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의 죄가 들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 : 이런 경우에도 교회 권징에 의해 목사가 공적으로 수찬금지를 선언할 때까지는 이들을 금지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73문 : 그러면 교회 내 이런 문제를 지도할 규율(規律)이 필요합니까?

대답 : 교회의 영적 질서가 바로 유지되고 교회 내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는 장로를 세워 교인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며, 아울러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규율에 따라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끝)

- 41) (신 4:15)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행17:24,25)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ощ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 42) (골 2:16,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꾀민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 43) (히 9:9,10)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 44) (행 12: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 45) (마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 46) (잠 6: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 6:8)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 6:10,11) 좀 더 자자, 좀 더 출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놀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 47) (마 22:37-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 48) (마 7:23) 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우지 않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삼상 15:22)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렘 7:23,24)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의 꾀와 강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 49)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 50) (렘 29:12)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갈 4:6) 너희가 아들이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딤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 51) (요 14: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 52) (마 7: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 53) (롬 11:33-36)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갇으심을 받겠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 54) (고전 15:28)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 55) (신 8:17,18)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 56) (골 9:3)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 57)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 58)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 59) (엡 4: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 60) (롬 4: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61) (렘 4:4)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끝 자가 없으리라. (롬 4: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62) (엡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엡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 63) (고전 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엡 5: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요 6: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 1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